

青少年的 競技性向에 關한 研究

李昌俊* · 梁明煥*

目 次

I. 序 論
II. 研究方法
1. 표집
2. 경기성향척도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III. 結果 및 分析
1. 경기성향의 차원과 안정성 분석
2. 독립변인에 따른 경기성향의 비교
3. 주요타자들의 스포츠 태도
IV. 論 議
V. 結 論

I. 序 論

스포츠가 청소년과 젊은 선수들에게 바람직한 성격특질과 가치를 함양시켜준다는 사회화의 효과는 일반인들 사이에는 보편화된 신념으로 간주된다. 최근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노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청소년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가치전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스포츠 사회화의 경험은 개인이 사회가 지니고 있는 신념, 가치 및 규범 등을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스포츠 경기는 공정한 태도, 선의의 경쟁, 스포츠 정신과 같은 절대가치를 표방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가 점차 산업화되고 대중화 되어감에 따라 경쟁성, 유능성, 승리와 같은 현실사회의 상대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¹⁾

* 自然科學大學 體育學科 (Dept. of Physical Education,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임번장, "스포츠 社會化에 있어서 競技性向에 關한 研究", (미발행박사학위 논문, 1986), p. 70.

경기성향(game orientation)은 특정개인이 승리와 경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구성개념으로서 많은 교육자들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스포츠 장면에서 놀이성향(play orientation)은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명정대하게 경기하는 참가자의 태도를 의미하며, 전문성향(professional orientation)은 페어플레이(fair play)나 스포츠맨십(sportsmanship)보다는 승리나 성공을 중요한 가치로 수용하는 참가자의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정한 경기보다 승리를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 청소년은 전문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놀이성향에서 전문성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문화(professionalization)라고 부르며, 청소년스포츠가 전문화의 도관(conduit)으로서 기여하는 정도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학문적 초점은 청소년 스포츠프로그램들이 승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스포츠 참여로부터의 즐거움이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수박 겉 핥기식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데서 기인되었다.²⁾ 사실, 현대 스포츠 프로그램의 조직과 구조는 프로스포츠,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경쟁의 과정보다도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성공을 중요시하는 직업세계의 가치로 접근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공정하게 경기하는 경쟁의 과정보다는 경쟁의 산물이나 업적이 더욱 가치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경쟁성, 탁월성 추구, 승리와 같은 스포츠 규범들은 일반사회의 성취지향적 규범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취기준이 공정한 경기와 스포츠맨십과 같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목표들과 종종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다.³⁾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스포츠에서 놀이성향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문성향이 지배적일 수 있는 것이다.

조직적인 청소년 스포츠에 대한 비평은 이러한 몇몇 프로그램들이 후에 성인의 경쟁 스포츠세계로 유형화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성인세계는 지나치게 상금을 강조하고 오직 최고의 선수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다. 리그전이나 토너먼트 경기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린 선수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격에 반하는 태도함양에 연루될 것이다.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참여와 가치성향에 대한 연구문헌은 주로 기술적(descriptive) 접근과 횡단적/상관(cross-sectional/correlational) 접근 두 형태의 연구로부터 집적된 것이다. 기술적 연구 범주에는 조직적인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와 참여를 유도하는 매력요인을 밝혀내려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⁴⁾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2) Annelies knoppers, Jayne Schuiteman, & Bob Love, "Winning is not the only thing", *Sociology of Sport Journal*, 1986, 3: 43~56.

3) Mary A. McElroy, & Don R. Kirkendall, "Significant others and professionalized sport attitud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1980, 51(4): 645~653.

4) 양명환 · 임상용, "남여대학생들의 스포츠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춘계학술세미나 초록집, 1993, pp. 33~39.

Diane L. Gill, John B. Gross, & Sharon Huddleston, "Participation motivation in youth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984, 14: 1~14.

Sharon Ann Mathes & Robert Battista, "College men's and women's motives for

중요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즐거움 추구, 기술향상, 건강/체력, 자신에의 도전, 집단성원이 되는 것 등이다.

횡단적 설계를 이용한 연구들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및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변인간 경기성향의 차이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⁵⁾

경기성향은 Webb(1969)에 의해 최초로 평가되고 고찰되었다. 그의 척도는 아동들에게 승리, 기술, 공정성 세 가치의 중요성을 서열평가하도록 요구한다. Webb는 세개의 가치를 6개단위의 순열로 서열화하는 위계적 도식을 개발하였다. 그는 세개의 가치를 경기성향의 양극적 단일차원 구성개념으로 가정함으로써 어린이는 놀이성향이나 전문성향중 하나를 소유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놀이성향은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전문성향은 승리를 더욱 강조하는 가치로 규정하였다. Webb의 척도와 도식은 경기성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표준화 도구로 활용되어왔다.⁶⁾

Webb는 경기에 대한 태도의 전문화에 관한 최초의 연구에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성인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됨으로써 최초의 경기 참여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정성보다 승리나 기능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Mantel과 Vander Velden는 비공식적 스포츠 상황과 매우 조직적인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와 비선수간의 경기성향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Webb의 개념을 공식적인 스포츠프로그램에 확장시켰다. 연구결과 그들은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85, 61 : 719~726.

John C. Pooley, *Drop-outs from the sport: A case study of boys age group soccer*, presented at annual conference of AAHPERD, (Boston, 1981).

Christopher L. Stevenson, "Socialization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port: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Research Quarterly*, 1975, 46 : 287~301.

Vern Seefeldt & Daniel Gould,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athletic competition in children and youth", (Washington, DC : ERIC Clearinghouse on teacher education, 1980).

5) 임번장, op. cit

임번장·김범식·강신욱·구창모·이종길·박진경·김우성, "스포츠 참여가 경기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제26회 하계 학술발표회 초록집, 1988, 113~115.

S. Blair, "Professionalization of attitude toward play in children and adul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1985, 56 : 82~83.

Kidd, T. & W.F. Woodman, "Sex and orientation toward winning in sport", *Research Quarterly*, 1975, 46 : 476~483.

H. Komuka, "Japanese top-athletes' attitudes toward their sports career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1982, 17 : 71~78.

Lawrence T., Maloney & Brian M. Petrie, "Professionalization of attitudes toward play among Canadian school pupils as a function of sex, grade and athletic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72, 4 : 184~195.

Douglas A. Kleiber, & Glyn C. Roberts, "The effects of sport experience in development of social character: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981, 3 : 114~122.

S. Greendorfer, & M. Ewing, "Race and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ization into sport",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1981, 52 : 301~310.

6) Harry Webb, "Professionalization of attitudes toward play among adolescents", pp.161~178 in Gerald S. Kenyon(ed.), *Aspects of Contemporary Sport Sociology*, (Chicago : Athletic Institute, 1969).

조직적인 청소년 축구 참여자들은 승리와 기술의 전문성향을 높게 보고하였으나, 비참여자들은 공정한 놀이성향을 높게 나타내었다고 주장하였다.” Maloney와 Petrie는 캐나다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성향을 조사한 결과 남자와 청소년스포츠 참여자들이 여성과 비참여자들보다 훨씬 승리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정보다 기능과 승리를 강조하는 전문성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두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능숙한 경기운영(기술), 상대방을 이긴다(승리), 정정당당하게 경기한다(공정한 경기)의 가치 중요성의 순위를 서열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Kidd와 Woodman은 공정한 경기 대신에 즐거움 추구 항목으로 대체하고 조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승리지향적이지만 양성에서 참여빈도가 승리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전문화된 스포츠 태도가 청소년스포츠 참여자에게는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고 스포츠맨십과 같은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로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Webb의 독창적인 연구가 발표된 이후 경기성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문화와 연령, 스포츠 참여, 성 등의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경기성향/전문화는 연령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경쟁 스포츠 참여수준 및 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연령이 많은 남성(특히 고등학생)과 운동선수들은 어린아이, 여성 및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학생보다 전문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설명은 전문성향을 소유한 청소년은 즐거움과 공정한 경기에 절대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성향의 차이는 또한 Webb의 척도와 도식의 작용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다.¹¹⁾ 사실 Webb의 척도는 “어느 경기에서”라는 구체적인 맥락을 정의하고 있지 못한점¹²⁾, 경기성향의 양극성 가정, 그리고 경기성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요소의 순위 서열화를 사용했다는 점¹³⁾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아마도 청소년들은 승리와 공정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Webb의 척도를 통해서 가치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치화가 조정되는 상황의 맥락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리커트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요소순위 서열화로 제기되

7) Richard C. Mantel & Lee Vander Veld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ization of attitude toward play of preadolescent boys and participation in organizes in sport”, pp.172~178 in George H. Sage(ed.), *Sport and American Society*, (Reading, MA : Addison-Wesley, 1974).

8) Lawrence T. Maloney, & Brain M. Petrie, op. cit.

9) Kidd & Woodman, op. cit.

10) Knoppers, Schuiteman & Love, op. cit., p.44.

11) Ibid, p.34.

12) Jay J. Coakley, *Sport in Society : Issues and Controversies*(3rd Ed.), (St. Louis : C. V. Mosby, 1986).

Annelies Knoppers, “Professionalization of attitudes : a review and critique”, *Quest*, 1985, 37 : 92~102.

13) Knoppers, Schuiteman & Love, 1986. op. cit. p.44.

는 방법론적인 약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Webb의 척도가 갖고 있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Knoppers 등¹⁴⁾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두가지 경기상황에서 경기성향의 차원과 경기성향의 상황에 따른 안정성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온 변인중 운동경기 지위(운동선수, 일반학생), 성(남, 여), 학교수준(중, 고, 대학교) 및 스포츠참여 유형(개인, 대인, 단체 경기)의 독립변인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첫째, 놀이성향과 전문성향의 평균점수와 Webb의 도식과의 관계(경기성향 차원)
- 둘째, 경기성향 점수들의 경기상황의 유형에 따른 변화(경기성향의 상황 특수성)
- 셋째, 성, 운동경기 지위, 학교수준, 스포츠참여 유형에 따른 경기성향의 변화
- 넷째, 운동선수들이 인지하는 주요타자의 유형, 부모의 심리적 지지도

II. 研究 方法

1. 표 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지위에 따라 운동선수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피험자의 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조사대상의 특성

	남 자				여 자			
	중	고	대	계	중	고	대	계
운동선수	143	120	106	369	146	114	28	288
일반학생	75	75	100	250	74	75	101	250
계	218	195	206	619	221	221	129	538

운동선수 집단의 표집은 제주도의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운동선수들로서 학교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부터 각 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까지 전 범위의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스포츠 참여 유형별로 총 657명을 추출하였다. 대학교 운동선수는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학생과 운동서클에 가담하여 공식경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남녀 일반학생 선수를 포함시켰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일반학생들에 대한 표집은 3단계 집락 표집법(three-stage cluster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남·여 중·고등학교를 교육청에 따라 4개 군으로 구분한 다음 난수표를 사용하여 각 군에서 무선으로 중·고 2학년 학생 2개학급을 선정

14) Ibid.

하고 다시 표집된 학급에서 일부 학생만을 우선표집하였다.

2. 경기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기성향척도(Game Orientation Scale)는 Knoppers등¹⁵⁾이 사용했던 것으로서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신뢰도, 객관도 검사등 예비검증을 거치고 연구에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Webb(1966)의 공정성, 기능, 승리의 세가지 성향에 즐거움 추구 항목을 추가하여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이 척도는 두개의 대조적인 경기상황을 각본한 문장에 반응하여 4가지의 성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락적 시나리오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비공식적인 친선경기에서 친구 또는 가족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였고, 경쟁적 시나리오에서는 전국대회나 선수권대회에서 경기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각 시나리오에서 피험자들은 4개의 경기성향요소 각각에 대해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중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위락, 경쟁상황에서 "승리하는 것, 공명정대하게 시합하는 것, 능숙하게 경기하는 것, 즐거움을 얻는 것"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숙하게 경기한 것과 승리하는 것에 응답한 점수를 합하여 전문성향으로 정량화하였고, 즐거움을 얻는 것과 공정하게 경기하는 것에 응답한 점수를 합하여 놀이성향으로 규정하였다. 이 절차는 각 피험자별로 두개의 전문성향점수와 두개의 놀이성향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경기상황에서 경기성향점수는 최저 2점에서 최고 10점사이에 위치한다.

본 연구가 심리측정학적인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있지는 않으나, 도구의 신뢰도와 객관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2주간격을 두고 도구의 안정성 정도를 구한 결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위락상황에서 .61, 경쟁상황에서 .67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자 A와 B가 2차측정을 하여 2회 측정결과의 상관계수로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위락상황의 객관도는 .63, 경쟁상황은 .71로 나타났다. 한편, 도구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황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표-2. 경기성향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계수

항 목	위락 상황		경쟁 상황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승리	.846	-.007	.876	-.001
공정성	.286	.674	.085	.773
기술	.809	.163	.812	.223
즐거움	-.095	.852	.100	.788
고유값	1.60	1.06	1.69	1.02
설명변량	40.1	26.6	42.3	25.5
Cronbach's Alpha	.601	.671	.623	.714

15) Annelies knoppers, Jayne Schuiteman, & Bob Love, "Winning is not the only thing", *Sociology of Sport Journal*, 1986, 3: 43~56.

(internal consistency) 정도를 의미하는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양 경기 상황은 설명변량의 차이만 있을뿐 동일하게 두개의 요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인 1은 전문성향을 나타내고, 요인 2는 놀이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도구에는 주요타자의 스포츠 태도 1문항과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측정하는 두개의 문항이 부가적으로 포함되어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경기성향질문지의 조사는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표집에 해당된 학교의 체육교사를 조사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들 체육교사들에게는 사전에 연구의 취지와 질문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체육수업시간, 운동연습시간중에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완성된 질문지의 회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생인 경우는 본 연구자들이 직접 교양체육 및 교양수업시간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설문에 응답토록하였다.

조사가 끝난 자료는 분석가능한 자료로 정리한뒤 개인용 컴퓨터에 개별 입력을 시킨 다음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t검증(paired t-test), 단순상관, 일원분산분석, 분할표 검중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시 배부된 질문지의 수는 총 2000매이지만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시킨 결과 1157매가 분석가능한 자료로 판정되었고 이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Ⅲ. 結果 및 分析

1. 경기성향의 차원과 안정성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서 Webb의 도식에 근거하여 두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각 상황에서 한 성향에 높은 점수를 얻은 피험자는 다른 성향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즉, 유희성향과 전문성향 점수간에는 부적의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위락상황과 경쟁상황에서 놀이성향간, 전문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경기성향은 상황의 특정한 구성개념이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가지 유형의 상황에 따라 경기성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독립변인들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집단 그 자체만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독립변인들의 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성향 점수의 분산정도를 감소시켰다. 총 표집을 성(2수준), 경기지위(2수준), 학교수준(3수준)에 따라 12집단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표-3. 집단별 경기성향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황내 상관계수

학교 수준	성별	경기 지위	사례수	위락적 상황					경쟁적 상황				
				놀이성향		전문성향		r	놀이성향		전문성향		r
				M	SD	M	SD		M	SD	M	SD	
중 학 교	남	선수	143	8.73	1.26	8.29	1.46	.23	8.76	1.17	8.81	1.31	.27
		일반	75	8.80	1.33	7.31	1.72	.26	8.72	1.26	8.68	1.35	.39
	여	선수	146	8.64	1.13	7.80	1.47	.14	8.75	1.07	8.56	1.30	.40
		일반	74	8.93	.99	7.50	1.42	.08	8.65	1.06	8.59	1.29	.10
고 등 학 교	남	선수	120	8.74	1.06	8.10	1.43	.32	8.83	1.16	8.95	1.18	.15
		일반	75	8.73	1.03	7.16	1.52	.11	8.69	1.18	8.75	1.16	.26
	여	선수	114	8.54	1.11	8.04	1.29	.44	9.00	1.01	8.95	1.01	.30
		일반	75	8.51	1.04	7.13	1.55	.16	8.71	1.10	8.93	.99	.34
대 학 교	남	선수	106	8.83	1.34	7.79	1.71	.15	8.54	1.42	9.28	1.04	.34
		일반	100	8.86	1.21	6.84	1.81	.12	8.57	1.42	8.54	1.70	.13
	여	선수	28	8.57	1.50	6.79	1.32	.13	8.78	.91	8.61	1.34	.17
		일반	101	8.61	1.08	6.52	1.59	.20	8.75	1.04	8.89	1.07	.26

표-3은 위락, 경쟁 상황 각각에서 얻은 경기성향 점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황내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위락상황에서는 놀이성향 점수가 전문성향 점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상황에서는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의 크기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들은 양 경기성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평균이하의 점수분포는 어떠한 집단에서도 볼 수 없었다. 즉, 한 성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이 다른 성향에서 낮은 점수를 수반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성향간의 모든 상관계수들은 위락적 상황에서는 .08에서, .44까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경쟁상황에서도 .10에서 .40까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두 경기성향간의 점수가 부적인 상관을 보

표-4. 경기상황간 경기성향에 대한 비교(t값)

학교 수준	성별	경기 지위	놀이성향(위락상황)	전문성향(위락상황)
			놀이성향(경쟁상황)	전문성향(경쟁상황)
중 학 교	남	선수	- .22	- 4.91**
		일반	.60	- 7.28**
	여	선수	-1.35	- 5.99**
		일반	2.76**	- 6.65**
고 등 학 교	남	선수	-.88	- 6.10**
		일반	.26	- 8.35**
	여	선수	-3.96**	- 7.15**
		일반	-1.70*	- 9.30**
대 학 교	남	선수	2.12*	- 8.78**
		일반	2.42*	-10.02**
	여	선수	-.66	- 6.46**
		일반	-1.05	-15.42**

*p<0.05

**p<0.01

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지지해 주지 못하였다.

한편, 상황에 따른 각 경기성향의 안정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인에 대하여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두개의 전문성향과 두개의 놀이성향을 각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성향인 경우는 12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놀이성향에서는 5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집단에서 전문성향은 위락상황보다 경쟁상황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놀이성향은 중학교 일반학생, 대학교 남자선수와 일반학생에게서 경쟁상황보다 위락상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교 여자선수와 일반학생 집단은 위락상황보다 경쟁상황에서 놀이성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성향은 상황에 특정한 것일 수 있다는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2. 독립변인에 따른 경기성향의 비교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수준, 운동경기지위 및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5는 이러한 독립변인들에 따른 경기성향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5. 성, 학교수준, 경기지위 및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경기성향의 평균

상황	경기 성향	성		학교수준			경기지위		스포츠 참여유형			
		남 (619)	여 (538)	중 (438)	고 (384)	대 (335)	선수 (657)	일반 (500)	개인 (342)	대인 (148)	단체 (167)	
위락	놀이	M	8.78	8.63	8.74	8.63	8.75	8.69	8.74	8.66	8.82	8.61
		SD	1.21	1.21	1.19	1.07	1.24	1.20	1.13	1.17	1.07	1.34
위락	전문	M	7.68	7.42	7.83	7.71	7.04	7.96	7.03	7.84	7.83	8.30
		SD	1.68	1.55	1.55	1.50	1.75	1.49	1.65	1.42	1.60	1.49
경쟁	놀이	M	8.69	8.78	8.73	8.83	8.64	8.78	8.68	8.83	8.85	8.61
		SD	1.27	1.05	1.13	1.11	1.27	1.16	1.18	1.08	1.01	1.40
경쟁	전문	M	8.85	8.76	8.67	8.91	8.89	8.87	8.73	8.75	8.93	9.05
		SD	1.32	1.17	1.31	1.09	1.33	1.22	1.30	1.28	1.13	1.12

성별에 따른 경기성향을 각 상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락상황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전문성향을 나타냈으며 ($t = 2.67, df = 1155, p < .001$), 놀이성향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경쟁상황에서도 성별에 따른 양 경기성향의 차이가 유의하지 못하였다.

학교수준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를 분산분석한 결과, 위락상황에서 전문성향은 학교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2, 1154) = 25.67, p < .001$). Scheffe' 방식으로 사후검증한 결과 중학생과 대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위락상황에서 전문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경쟁상황에서도 학교수준에 따라 전문성향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2, 1154) = 4.54, p < .05$). 세부적인 차이의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과 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경쟁상황에서 전문성향은 고학년일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놀이성향은 위락상황($F(2, 1154) = 1.26, n. s.$), 경쟁상황($F(2, 1154) = 2.55, n. s.$) 모두에서 학교수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경기지위에 따른 경기성향을 분석한 결과, 위락상황에서 놀이성향은 운동선수와 일반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 = -.75, df = 1155, p > .05$), 전문성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9.98, df = 1155, p < .001$). 즉, 운동선수가 일반학생보다 전문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상황에서는 경기지위에 따라 놀이, 전문경기성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는 양 상황의 전문성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락상황에서 놀이성향은 스포츠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2, 654) = 1.35, n. s.$), 전문성향인 경우는 스포츠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2, 654) = 6.03, p < .01$). 사후검증 결과, 개인스포츠와 대인스포츠, 대인스포츠와 단체스포츠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단체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전문성향을 보였다. 경쟁상황에서 놀이성향은 스포츠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2, 654) = 2.41, p > .05$), 전문성향은 스포츠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 654) = 3.52, p < .05$). 사후검증 결과 개인스포츠선수와 단체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단체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전문성향을 보였다.

1) 경기지위에 따른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경기성향

경기지위에 따라서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경기성향의 차이를 분리분석을 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일반학생의 경기성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위락상황, 경쟁상황에서의 전문, 놀이성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학교수준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는 위락상황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문성향은 중학교 학생이 가장 높고, 고학년일수록 낮게 나타났으나($F(2, 497) = 9.09, p < .001$), 놀이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 497) = 1.78, n. s.$). 또한 경쟁상황에서는 놀이성향($F(2, 497) = .046, n. s.$)과 전문성향($F(2, 497) = .92, n. s.$)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운동선수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가 전문성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락상황에서 전문성향은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 = 2.45, df = 655, p < .01$), 놀이성향은 남·여선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쟁상황에서도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전문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t = 2.87, df = 655, p < .01$), 놀이성향은 남·여선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1.50, df = 655, n. s.$).

학교수준에 따른 운동선수 집단의 경기성향은 위락상황에서는 전문성향, 경쟁상황에서는 놀이성향, 전문성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락상황에서 놀이성향은 학교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F(2, 654) = .54, n. s.$), 전문성향은 학교수준별로

표-6. 경기지위에 따른 일반학생과 운동선수의 경기성향

상황	경기 성향	일반 학생					운동 선수					
		남 (250)	여 (250)	중 (149)	고 (150)	201 (335)	남 (369)	여 (288)	중 (289)	고 (234)	대 (134)	
위락	놀이	M	8.80	8.67	8.86	8.62	8.73	8.76	8.59	8.68	8.64	8.77
	SD	1.19	1.06	1.17	1.04	1.15	1.22	1.17	1.20	1.09	1.37	
			t = 1.27		F = 1.78		t = 1.84		F = .53			
위락	전문	M	7.08	6.99	7.40	7.14	6.67	8.08	7.79	8.05	8.07	7.58
	SD	1.71	1.06	1.58	1.53	1.71	1.54	1.43	1.49	1.36	1.68	
			t = .57		F = 9.09**		t = 2.45*		F = 5.46*			
경쟁	놀이	M	8.65	8.71	8.68	8.70	8.66	8.72	8.86	8.75	8.92	8.59
	SD	1.30	1.06	1.16	1.13	1.24	1.25	1.04	1.12	1.09	1.33	
			t = -.53		F = .05		t = -1.50		F = 3.42*			
경쟁	전문	M	8.64	8.81	8.64	8.84	8.72	8.99	8.72	8.68	8.94	9.14
	SD	1.45	1.12	1.32	1.08	1.43	1.20	1.21	1.31	1.09	1.13	
			t = -1.48		F = .92		t = 2.87**		F = 7.31**			

*p<0.05 **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 654) = 5.46, p < .001). 사후검증결과 중학교선수와 대학선수, 고등학교선수와 대학선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선수들의 전문성향이 가장 낮았다. 경쟁상황에서는 놀이성향이 학교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 654) = 3.42, p < .05), 사후검증 결과 고등학교선수가 대학교선수보다 놀이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성향도 학교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F(2, 654) = 7.31, p < .01), 평균차를 사후검증한 결과 중학생선수와 고등학생선수, 고등학생선수와 대학생선수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고학년선수일수록 전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3. 주요타자들의 스포츠 태도

이 절에서는 경기성향과 상관성이 있는 주요타자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보충적인 자료로서 운동선수만을 대상으로 주요타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를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주요타자(significant other)

운동선수들이 주요타자로서 누구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신이 스포츠경기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먼저 운동선수의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7에 제시되어 있다. 표-7에서 보면, 남자선수는 아버지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자선수는 교사/코치를 가장 중요한 주요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남·여 모두 아버지가 자신의 스포츠 경기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학교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주요타자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코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인 경우는 교사/코치의 비율보다 아버지나 친구의 비율이 높고 어머니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위에 따라서는 개인 경기 선수들은 교

사/코치를 주요타자로 지각하고 있으며, 대인, 단체스포츠 선수들은 아버지를 가장 중요한 주요 타자로 인지하고 있다.

표 -7. 운동선수들의 각 변인에 따른 주요타자 인지도

		어머니	아버지	친구	교사/코치	계
성별	남	63 (9.6)*	143(21.8)	63(9.6)	100(15.2)	369(56.2)
	여	62(9.4)	84(12.8)	29(4.4)	113(17.2)	288(43.8)
	계	125(19.0)	227(34.6)	92(14.0)	213(32.4)	657(100.0)
$\chi^2 = 19.00, df = 3, p < .001$						
학교 수준	중	52(7.9)	112(17.0)	30(4.6)	95(14.5)	289(44.0)
	고	42(6.4)	73(11.1)	20(3.0)	99(15.1)	234(35.6)
	대	31(4.7)	42(6.4)	42(6.4)	19(2.9)	134(20.4)
	계	125(19.0)	227(34.6)	92(14.0)	213(32.4)	657(100.0)
$\chi^2 = 61.41, df = 6, p < .001$						
종목	개인	54(8.2)	99(15.1)	48(7.3)	141(21.5)	342(52.1)
	대인	31(4.7)	56(8.5)	27(4.1)	34(5.2)	148(22.5)
	단체	40(6.1)	72(11.0)	17(14.0)	38(5.8)	167(25.4)
	계	125(19.0)	227(34.6)	92(14.0)	213(32.4)	657(100.0)
$\chi^2 = 31.13, df = 6, p < .001$						

* 사례수(백분율)

2) 부모의 심리적 지지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도는 두개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즉, 자식의 능력평가 지각수준과, 지각된 가치기대 수준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8이다.

표 -8. 운동선수들이 인지하는 부모의 심리적 지지도

		성		학교수준			스포츠유형		
		남	여	중	고	대	개인	대인	단체
능력평가수준	M	3.57	3.29	3.39	3.47	3.52	3.40	3.45	3.53
	SD	0.74	0.70	0.75	0.67	0.82	0.75	0.76	0.70
		$t = 4.67^{**}$		$F = 1.44$			$F = 1.79$		
가치기대수준	M	3.76	3.64	3.64	3.81	3.65	3.57	3.83	3.85
	SD	0.90	0.89	0.99	0.80	0.82	0.88	0.91	0.86
		$t = 1.76$		$F = 2.63$			$F = 7.56^{**}$		

* $p < 0.05$

** $p < 0.01$

표-8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부모의 자식 능력평가수준은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높게 나타났다($t = 4.67, df = 655, p < .001$). 즉, 남자선수의 부모가 여자선수의 부모보다 자식이 스포츠에 재능이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이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부모의 가치기대수준은 남녀별로 차이가 없었다($t = 1.76, df = 655, n.s.$). 운동선수의 학교수준별에 따른 부모의 자식 능력평가수준은 보

통정도로서 학교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 654) = 1.44, n.s.$). 또한 부모의 가치기대 수준도 학교수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 654) = 2.63, n.s.$).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부모의 능력평가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가치기대 수준은 스포츠유형 별로 차이를 나타냈다($F(2, 654) = 7.56, p < .001$). 사후검증결과, 단체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가장 높고, 대인스포츠, 개인스포츠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스포츠 선수들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IV. 論 議

본 연구의 주목적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스포츠 경험을 통한 사회화에 있어서 경기에 대한 특정성향과 관계된다고 추정되는 변인을 설정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어온 관련변인중 운동경기 지위(운동선수, 일반학생), 성(남, 여), 학교수준(중, 고, 대학교) 및 스포츠참여 유형(개인, 대인, 단체경기)의 독립변인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지금까지 경기성향 연구에서 표준척도로 사용되어 온 Webb의 척도/도식과 본 자료의 경기성향 점수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절에서는 연구문제의 순으로 자료를 해석, 설명하고자 한다.

1. 경기성향의 차원과 안정성

연구문제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서 Webb의 도식에 근거하여 두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각 상황에서 한 성향에 높은 점수를 얻은 피험자는 다른 성향에서 낮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즉, 유희성향과 놀이성향간, 전문성향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경기성향은 상황의 특정한 구성개념이고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가지 유형의 상황에 따라 경기성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자료는 12개의 집단 어떠한 조건에서도 가설1과 들어맞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결국 놀이성향과 전문성향이 양극성이고 상호배타적인 경기성향 요소라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즉, 한 성향의 높은 가치화가 다른 성향의 유사한 가치화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의 크기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들은 양 경기성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평균이하의 점수분포는 어떠한 집단에서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경기성향은 Webb의 도식에서 가정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경기성향이 단일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문제 2의 경기성향의 상황 특수성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놀이성향은 분명히 경쟁상황보다 위락상황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집단에서 평균점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7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놀이 성향의 안정성은 다른 변인들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평균의 크기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놀이성향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성향의 평균점수들은 12집단 모두에서 상황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위락상황보다는 경쟁상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전문성향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Knopper 등이 지적한 대로 특정한 상황 규정이 부족한 Webb의 성향척도는 가변성이 은폐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지지해 주고 있다.

연구문제 1과 2의 결과는 3개의 민족집단과 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15개 고등학교 학생 864명을 대상으로 경기성향을 조사한 Knoppers 등의 결과¹⁶⁾와 일치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자료의 청소년들은 승리와 공정성, 기술과 즐거움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기성향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2. 독립변인들에 따른 경기성향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수준, 운동경기지위 및 스포츠 참여유형에 따른 경기성향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위락상황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전문경기성향을 나타내고, 학교수준별로는 저학년일수록 전문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스포츠 참여유형별로는 단체경기 선수들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포츠참여 유형에 따라서는 단체경기 선수들이 다른 종목의 선수들보다 전문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놀이성향보다는 전문성향이 상황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단체경기선수일수록 전문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ard¹⁷⁾, Maloney와 Petrie¹⁸⁾, Webb¹⁹⁾, 임번장 외²⁰⁾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위에 따라서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으로 구분하여 경기성향의 차이를 분리분석한 결과, 일반학생인 경우는 위락상황에서의 전문성향만이 학교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교 학생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전문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운동선수인 경우는 위락, 경쟁상황에서의 전문성향은 고학년일수록 높고, 위락상황에서는 저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각 변인들에 따른 경기성향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성향은 일반학생보다 운동선수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개인경기보다 단체경기선수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포츠 경기의 조직화 정도가 높고, 팀 성원에게 팀의 존속을 위한 업적을 요구하는 수준

16) Ibid.

17) Ansel Card, *Orientation toward winning as a function of athletic participation, grade level and gender*, Paper presented at AAHPERD convention, 1981.

18) Maloney & Petrie, 1972, op. cit.

19) Webb, 1969, op. cit.

20) 임번장 외, 1988, op. cit.

이 높은 단체스포츠에서 전문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Theberge, Curits 그리고 Brown²¹⁾, 임번장의 연구결과²²⁾와 일치하고 있다. 임번장은 조직적인 경기에 참여하는 단체스포츠 선수들이 다른 집단보다 전문성향이 높은 이유를 조직내의 개인은 독립적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자보다는 팀의 궁극적인 목표인 승리를 위한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고, 또한 조직적 스포츠로 갈수록 팀내의 지위서열 배분 기준이 집단성원의 일차적인 인간관계보다는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및 기능, 훈련정도와 같은 성취기준에 의하여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쟁상황에서의 전문성향이 고학년일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고학년일수록 스포츠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때문에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경쟁적, 성취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학습, 강화받게 되는 것이 저학년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적 규범이나 성취를 강조하는 성인세계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수준이 높아졌을 것이다. 또한 저학년들이 위락상황에서 전문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두 상황간을 구분 이해하는 정도가 고학년들보다 낮기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즉, 대학생일수록 양 상황에 따른 점수분포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거나 중학생일수록 양 상황간 점수분포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주요타자들의 스포츠 태도

운동선수만을 대상으로 선수들이 인지하는 주요타자들의 유형과 부모의 심리적 지지정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에 관계없이 아버지를 제일 중요한 주요타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선수와 개인경기선수들은 교사/코치가 가장 중요한 주요 타자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국의 전국 청소년 스포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23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요타자와 전문화된 스포츠 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McElroy와 Kirkendall의 결과와는 불일치하고 있다²³⁾. 그들의 피험자는 여자들은 어머니를 남자들은 아버지를 가장 중요한 타자로 인식하였고, 교사/코치 및 친구간에는 성차가 없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여자선수들이 교사를 주요타자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선수인 경우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하는 부모보다는 교사나 코치의 권유나 지원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여자들이 스포츠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는 부모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1) N. Theberge, J. Curtis, & B. Brown, "Sex differences in orientations toward games : tests of the sport involvement hypothesis", pp. 285~308 in A. Dunleavy, A. Miracle & O.R. Reese (ed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Sport*, (Fort Worth :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82).

22) 임번장, 1986. op. cit., pp. 102~103.

23) Mary A. McElroy & Don R. Kirkendall, "Significant others and professionalized sport attitud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1980, 51 (4) : 645~653.

한편, 부모의 지식 능력평가수준은 여자선수보다 남자선수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스포츠 성공 가치기대수준은 단체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다른 유형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볼 때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통하여, 특히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성역할 사회화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스포츠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경기성향과 주요타자의 역할간의 관계를 직접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화된 스포츠 태도의 양성에 부모나 코치의 역할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할 수는 없다.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역할 학습과정에서 각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체인 주요타자의 사고, 태도 및 행동은 운동선수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 가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분석에서는 청소년의 스포츠 태도변화가 주요타자들에 의해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적절한 정도의 경쟁의식·승리의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소금과 같이 경기에 흥미를 더하고 생 그 자체에 활력을 더해준다. 그러나 조미료가 음식물에 지나치게 투여되었을 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이 승리도 유일한 것이 될때 그것은 결국에 공허함과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한다. 따라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다는 정신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스포츠를 지원하는 주요 타자들의 승리지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도구적 가치성향은 근시적인 가치전망으로서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뛰고 정정당당히 경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인본주의적 가치전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코치나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또는 청소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V. 結 論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스포츠 관련 경기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재현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 학교수준, 운동경기 지위, 스포츠참여 유형의 독립변인들에 따른 청소년들의 경기성향의 차원, 경기성향의 상황 특수성 및 경기성향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부차적으로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주요타자와 부모의 심리적 지지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놀이성향과 전문성향을 모두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2. 경기성향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
3. 남자가 여자보다, 일반학생보다 운동선수의 전문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4. 운동선수인 경우는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대학 운동선수가 중·고등학교 선수보다, 개인/대인경기 선수보다 단체경기 선수가 전문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5. 남자운동선수들은 아버지를 가장 중요한 주요타자로 인지하였고, 여자운동선수는 교사/코치를 가장 중요한 주요타자로 인지하였다.

앞으로 연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주요 문제로는 첫째, 청소년의 스포츠 사회화 연구는 가능하면 중단적인 설계를 이용하여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기 전체의 가치변화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기성향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성향은 복잡한 현상이고 상황에 특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기성향과 그 차원을 측정하고 결정하는 관계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ummary

A Study on Game Orientation in Youth

Chang-Joon Lee · Myung-Hwan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licate and extend past research on sport-related value orientations of youth.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examine the dimensionality, situation specificity, and differences of game orientation across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gender, schoo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athletic status (athlete, nonathlete), sport type (individual, personnel, team sport). The subjects had to indicate how important they felt it was to win, to play fair, to play well and to have fun in response to a description of a recreational and of a competitive situation. The investigators quantified professional orientation as the sum of the responses to playing well and winning, whereas play orientation consisted of the sum of the responses of having fun and playing fair. Only the responses of those who completed useable questionnaires ($n=1157$) were used in this investigat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subjects thought that the elements of both orientation were important.
2. The important of game orientation were situation specific.
3. Males and athletes have shown a greater degree of professionalization than females and nonathletes.
4. Male athletes, university athletes, and team sport athletes had significantly higher professional orientation scores than did male nonathletes, middle/high school athletes, and individual/personnel sport athletes.
5. Male athletes perceived fathers as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t other, whereas female athletes perceived teachers/coaches as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t other.